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모든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큰 문제가 되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다가 요사이 60%대로 떨어지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 지지와 인기가 40%를 넘고 있다. 취임 1년을 넘어서 2년 차에 들어섰지만 높은 지지율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서, 왜 꼭 이 시점에서 그런 사실을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터트리냐고 야당이나 당사자는 볼멘 목소리를 내지만 누가 집권을 해도 그것은 집권자의 권리요 자유이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말 한 마디 하려고 해도 시기와 장소 등 여건을 꼼꼼이 따져서 하게 되는 것이 상례다. 하물며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대사를 발표할 때는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치는 것이 상례다

이번 국군기무사령부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도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은 발표를 왜 경제 위기 등으로 문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시점에서의 발표 배후에 다

른 정략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저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바라보려는 달은 바라보지 않고 왜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흙 묻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오른손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왼손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등 시비하고 달려든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쳐두고 지엽말단(枝葉末端)의 결과지를 문제 삼아서 국민을 현혹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본다

국회의장 국회의부의장, 상임위원장, 각 당 대표, 원내 대표, 등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인 이슈가 되었다.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보안에 불이키 위하여 세세한 지출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특수활동비를 주머니에 든 삼짓돈처럼 개인 용도로 아무렇게나 낭용해서 문제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에게 잘 보일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서관들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갖다 바쳐서 받아먹은 대통령도, 갖다 바친 국정원장도, 집달한 비서관들도 모두 뇌물죄, 횡령죄, 직권남용죄 등의 죄목으로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힘없고 백없는 백성들이 등이 휘어지게 고생해서 번 돈에서 국가를 위하여 낸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힘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가정보원 등이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돈 번 돈으로 알고 횡령 착복한 것이다

2018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공언했던 정 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의원(1966년생)이 7월 23일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의 댓갈 공작 사건인 두루킹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두루킹 연루 자료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자신과 정의당과 진보 진영을 위하여 살신성인했다

가나오나 돈이 원수다. 돈(자본)이 주인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돈의 노예'인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려놓겠다고 취임 일성(一聲)을 공언했던 국회의장도 있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힘 있는 기관끼리 서로 눈 감고 짝짜꿍해서 나누어 먹는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는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은 합법적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영수증도 붙이고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장 감사 등을 받아야 국민주권 국가의 합당한 처사다

국회와 대통령 등 행정부 각 기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원칙적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검증 가능한 사용방법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예외를 약간 둘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행태와 불합리한 예산 운영을 볼 때, 국회 국방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감도 높은 사전 및 사후 감사를 반드시 제도적인 입법 및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 수뇌부, 특히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비서관실장, 정책실장 등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들의 께어있는 정신과 실천 의식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들끓으면 기자 간담회하고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어디 한두 번 일인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관행대로 해온 일도 사건이 나서 터져서야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고, 조치가 나뉘었을 때 재빠르게 시정하고 개혁하는 적폐청산의 정치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타당한 진리가 될 것이다

社說

‘버스 갑질’ 더는 없어야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어린이 통학버스 갑질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 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고자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천만 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여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동 경로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줄고 승·하차 정보를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유치원과 학교 통학버스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통학버스 안에 설치하는 단말기를 통해 버스 운전자가 과속, 급정지 등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위험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운전자 교육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레어만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左 達 承 明

左 達 承 明

▷ 뜻: 원편에 승명(承明)이 사무치니, 승명(承明)은 사기(史記)를 교열(校閱)하는 집인.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폭염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전국이 '가마솥' 더위에 찰뽀뽀 하며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사망자 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7월 셋째 주에만 566명이 온열질환에 걸렸으며 7명이 안타깝게 사

망했다. 이처럼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폭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하여 폭염을 이겨내도록 하자.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 확인하기 ■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

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파악하기(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은 특히 주의 필요)

■ 폭염예보에 맞추어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 확인하기 -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전에 정비하기 - 외출 시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 준비하기 ■ 무더위 안전상식(냉면, 배달 등) 알기 -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음식 먹지

않기 -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나 주류는 가급적 피하고, 생수나 이온음료 많이 마시기 - 실내 냉방온도 26도~28도 유지하기 - 한반도가 1994년을 뛰어넘어 기상 관측 111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폭염에 미리 대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윤화영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